

2018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심의위원 명단

(성명 가나다 순)

순번	성명	소속/직위
1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2	백미현	교육학 박사 · KC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3	임상빈	시각예술가, 잔꾀 팀원
4	임학순	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5	황현호	의정부 문화발전소 소장

2018 경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심의 총평

경기 꿈다락토요문화학교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으로 기준을 삼은 평가지표는 기획 의도가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타당성이 있는지의 ‘공공성’, 교육프로그램을 1년간 실행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단체의 역량’, 토요꿈다락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지의 ‘참신함’ 등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의 함의’ 여부가 중요한 근거로 평가되었다. 이 여건을 만족시킨 단체를 면접심사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 끝에 44개 팀이 선정하였다. 단체가 작성한 예산운영안을 점검하면서 예산집행 가능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예산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약간의 여유로운 잔여액으로 지원단체 수를 늘리게 되었다. 의도는 우수한데 프로그램 내용과 실현성에서 우려스러운 단체는 양성 차원에서 대폭 감액하고 선정하였다.

전반적인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기획안이 전체적으로 “평이하다”는 것이 압도적이었다. 크게 눈에 띄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실험정신이 담긴 기획안이 없는 반면 보편적으로 실행은 할 수 있는 기획안이 대부분이었다. 신규 지원 단체가 많음에도 문화예술인 다운 발상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거나 즐겁게 한 단체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특이한 점은 연극/뮤지컬 영역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지역성을 연계한다거나 통합교육의 시도 등에서 나름의 차별성을 얻으려 노력한 점이 보이며 교육기획안은 전반적으로 무난하였다. 그 점에서 보면 시각예술이나 음악, 문학 쪽 기획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능 전수형의 교육기획은 안타깝지만 배제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나 기본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획안도 배제되었다.

경기 토요꿈다락 문화학교 심사를 진행하면서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철학과 의미에 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문화재단이 그간 보여준 선도적인 문화예술교육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심사 내내 위원님들 모두 한결 같았음을 밝히며 총평을 마친다.